현불논단

가톨릭 법계도 왜곡과 예술윤리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종교상징 활용한 예술
종교화합 바탕서 가능
일방적 폄훼나 훼손은
사회갈등 요인 중 하나

법계도, 천주교 성화 사용
불교 대한 몰인식 드러나
불교 대한 예의조차 없어
한국천주교 공식사과해야

미국축구협회가 이란과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11월 30일)을 앞두고 이슬람공화국 문장을 삭제한 이란 국기(國旗)를 산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1979년 이슬람혁명을 일으킨 세력이 국기에 추가한 이 문장은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뜻이다. 이란 반정부 시위대가 시위 과정에서 이 문양이 삭제된 국기를 쓰고 있으며, 미국축구협회가 이를 소셜미디어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축구협회를 국제축구연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반발했다. 한 나라의 국기 문양을 임의대로 변형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지다.

종교에서도 이러한 점은 적용된다. 종교에서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성인이나 교리를 신도에게 교육시키기 위해 그림으로 부각시킨다. 종교행위를 묘사한 종교적 미술품을 우리는 '성화(聖畵)'라고 부른다. 문제는 자신의 종교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종교적 상징을 훼손하는 경우다. 이웃종교의 상징과 문장을 소도구나 하위 소재로 묘사한다면 이웃종교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로 종교 간에 심각한 갈등과 반목 요인이 된다.

그래서 종교예술에서도 종교윤리가 있다. 모든 공동체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성원이 최소한 지켜야 할 양심에 입각한 도덕의식과 윤리가 있다.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난장판이 되고, 미개한 집단으로 평가받게 된다.

다종교 사회에서 국민 화합을 위한 '종교 간 공존, 존중, 화합'은 중요한 종교윤리다. 유럽에서는 종교전쟁까지 발생한 역사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종교들이 상호 존중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광주시 가톨릭 순례길, 서울시 순례길에 늘어진 가톨릭 성지화 시설물과 이정표, 신안군 천사섬 성역화 등 종교적 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종교 간의 반목과 갈등이 되고 있다.

서소문 역사박물관(서울시 박물관으로 천주교단에 위탁 운영하는 박물관) 벽에 '일어나 비추어라'는 제목의 초대형 나전칠화가 걸려있다. 이 작품의 중앙에 한국불교 의식에서 신행의 대상이 되는 의상대사의 법계도(法界圖)의 문양이있다. 위로는 아기 예수처럼 이미지화한 그림이 있다. 얼굴은 십자가 문양으로 묘사하고, 팔은 천사의 두 날개를 십자가 형상으로 벌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언하는 모습이다. 아래는 법계도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또 맨 아래에 태극기 문양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아기 부처 탄생불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아래서 안정되게 떠받치는 법계도의 모양은 네모진 210개 한자를 대신해 둥근 묵주알 모양으로 변형, 천주교의 묵주로 형상화하였다. 이 나전칠화는 3점이 제작되어, 여주 옹청박물관, 우르바노대학(로마 교황청 건립) 로비에 전시되어 있다.

만약 불화(佛畵) 삼존불도를 제작할 때 십자가를 부처님 발바닥 아래에 깐다면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석가모니 본존불을 모시고, 양쪽 협시불을 모시는데, 이웃종교의 성자도 보살이라며 예수상이나 베드로, 바울의 존상을 추상화해 그려 넣는다면 어떻게 보일까?

물론 예술작품은 모방에서 시작하고, 아름다움의 창신(創新)이 생명이다. 하지만 표절이나 왜곡은 예술적 가치가 없다. 종교적인 그림, 즉 성화는 어느 누가 보아도 순수해야 하며 성스러워야 한다. 그러나 보는 사람이 짜증이 나고 분노하는 그림이라면 성화로서 실패한 작품이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아라한과 입전수수

입전수수(入廛垂手),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사슴동산에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 속박에서 벗어난 비구들과 함께 전법선언을 하셨다. 영실의 아라한들도 그 가르침을 따랐다. 이은상은 1937년 한라산을 등정하는 그 초입에 아라동 산천단 소림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한라산신제단법당'이라는 간판이 붙어있고 그 건물 안에는 치성광여래와 독수선정나반존자의 위패를 모시고 있었다. 이곳의 유래는 조선 성종 때 '목사이약동선생한라산신단기적비'에 새겨놓았다고 한다. 예로부터 국태민안을 비는 중요한 나랏일의 하나로 한라산신제는 백록담에서 봉행 되었는데, 그때마다 적설과 한풍으로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아 이곳에 제단을 마련하여 받들게 하고 비를 세웠다. 지금 이 비는 마멸되고 내력만이 전해진다.

은하수와 가까운 흰사슴동산 백록담은 바닷가 사람들에게 너무 먼 성스러움이다. 그 성스러움이 민간으로 내려오는 과정은 조선 중기 이후 불교가 모든 권위를 내려놓은 것과 맞닿아있다. 그 예를 영실 나한의 수행동에서 오백장군동(洞)으로 바뀌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명소승〉에서 임제는 1578년에 한라산 영실기암을 유람하고 중국 전국시대 전횡오백사(田橫五百士)을 언급한 시를 남겼다. 이후로 민간에서 오백장군 설화가 만들어져 오백나한과 혼용되었다. 이는 다시 제주의 창조여신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결합한다.

"설문대할망에게는 5백 명의 아들이 있었다. 어느 날 할망은 아들들을 위해 죽을 끓이다 그만 발을 헛디뎌 빠지고 말았다. 저녁에 돌아온 형제들은 죽을 먹으며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다며 아우성이었다. 막내만은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게 이상해 죽을 먹지 않았다. 죽을 다 먹고 나서 밑바닥을 본 후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막내는 어머니의 살을 먹은 형제들과는 같이 살 수 없다며 고산리 앞바다로 내려가서 슬피 울다 차귀도의 장군석이 되었다. 나머지 형제들은 그 자리에 늘어서서 한없이 울다 지쳐 몸이 굳어 기암괴석의 군상이 되었다. 이 바위들을 '오백장군'이라고 한다."

이때 막내가 내려간 곳이 서귀포 외돌개 또는 성산 일출봉, 신양리 장군바위라고도 한다. 제주 주민들은 각자 자신들이 사는 터전의 큰 바위에 한라산의 신령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내려온 한라산신은 현신적으로 제주 사람을 보호한다. "중국의 황제는 호종단에게 탐라국 땅의 기운을 누르라고 명하였다. 이에 동쪽 종달리로 들어온 그는 혈맥을 자르며 제주성과 가까운 화북리에 이르러 '수수못행기물'의 혈을 뜨는 데 실패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한라산신의 동생은 죽어서 매로 변해 그를 쫓아 서쪽 고산리에 이르러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닻을 올린 호종단의 배를 북풍과 함께 몰아쳐 난파시켰다. 돌아가는 것을 막았다고 해서 그 섬을 차귀도(遮歸島)라 하고, 조정에서는 그 신령스러움을 포상해 광양왕(廣壤王)으로 봉하여 해마다 향과 폐백을 내려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고 한다."

이렇게 어머니 산 한라의 기운은 제주민의 물, 땅, 온기, 숨이었다. 국립제주박물관에 소장된 작자 미상의 '영곡, 탐라십경'(18세기)에 잘 그려져 있다. 이 기운을 곁에 두고자 하는 바람으로 제주에 '절오백 당오백'이 생겨났다. 〈제주 선래왓 주지〉

社 說

동국대 건학장학제도 활성화 기대

동국대는 최근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2년 연속 9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 명문대학 반열에 올라섰다. 이 같은 변화에는 음과 양으로 지난해 발족한 건학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건학위원회는 고문 자승스님이 '등록금 걱정, 취업 걱정 없는 동국대'를 발원하며 발족됐다. 그만큼 장학제도를 개발하는데 발족 이후 많은 노력을 했다.

건학위원회의 대표적 건학장학제도는 '동국건학장학'과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을 꼽을 수 있다. '동국건학장학'은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제도로, 서울캠퍼스 30명, 경주캠퍼스 3명, 의료원 2명 등 35명이 1기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지역 사찰이 동국대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에게 직접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이는 사찰 스스로 '우리가 선발한 특별한 장학생'이라는 애정을 갖게 하고, 학생들 역시 '출신 지역 사찰에서 선발된 장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긍정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건학위원회의 장학제도는 인재육성과 신행을 통한 불교 포교를 모두 이루고 있어 눈길을 끈다.

12월 1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 수계법회가 이를 잘 보여준다. 113명 장학생들이 수계를 받았고, 이중에는 첫 수계를 받는 학생들도 상당수 였다. 사찰과의 결연을 통해 불교와 인연을 맺고, 학교에서 꾸준히 신행생활을 유도하니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청년 불자가 되어갔다.

사찰 전각 불사가 아무리 훌륭하게 진행되며 그 안에서 수행하고 신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사찰불사보다 인재불사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 불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건학장학제도 활성화를 기대한다.

회장 취임 계기로 인천불교 비상 나서야

11월 29일 영종도 국제도시 인천 용궁사에서는 인천불교총연합회 제 32대 회장 취임법회가 열렸다.

지난 7월 19일 단독 출마해 추대된 한국불교태고종 인천교구 종무원장이자 인천 용궁사 주지인 능해 스님이 본격 취임한 것이다. 능해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다양한 놀이문화 확산 등 종교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 이럴 때 일수록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는 찾아가는 포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 바다를 끼고 있는 인천은 지역 특성상 개신교의 교세가 강한 곳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개화기를 거치며 서구문명이 가장 먼저 들어온 지역이기도 하다. 도서지역이 겹친 지역 특성상 개신교회가 자리잡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내서 활동하는 사찰은 수십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조계종과 태고종 등 여러 종단으로 나뉘어져 그동안 화합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사실 인천불교총연합회는 16개 종단 380여 사찰이 손잡은 인천 최고의 불교 연합 조직이자 지역의 대표단체로 75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행정력과 수행력, 포교 경험을 두루 갖춘 능해 스님의 회장 취임을 계기로 오랜 내공을 쌓아온 인천불교총연합회가 소통과 화합으로 다시 뭉쳐 인천불교의 재건에 앞장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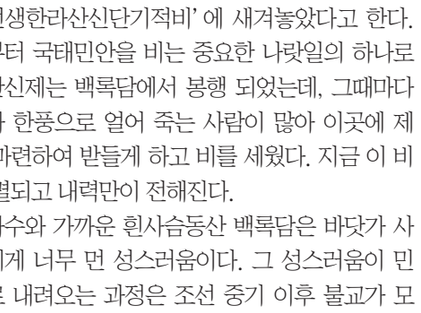
한국불교 특히 지역불교는 지금 침체기를 겪고 있다. 특히 젊은 청년층 불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한국불교의 허리가 끊기는 일이다.

능해 스님이 이번 취임사에서 청소년과 다문화 등 계층 포교 활성화를 공약했듯이, 인천 청년불교 포교의 새바람도 아울러 함께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의 깨끗함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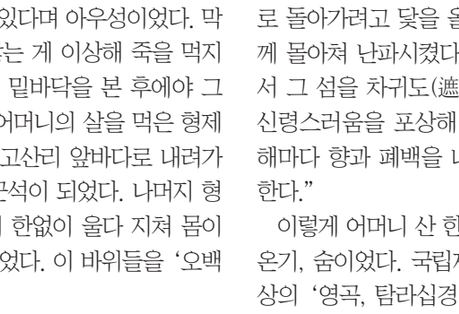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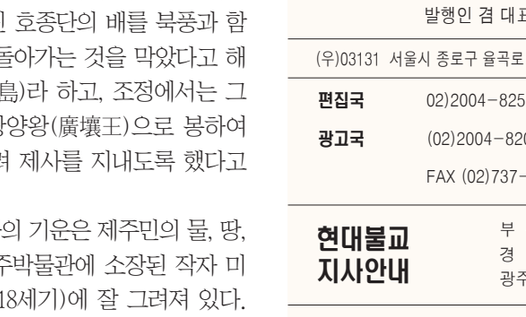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먹는 법
한 포씩 500ml물에 타서 수시로 나누어 마신다
나만의 요리에 조금 뿌려 먹는다
컵에 조금씩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 차처럼 나누어 마신다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